

몽 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1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의견	10



I. 일반개황

면적	156만 km ²	GDP	125억 달러 (2015년)
인구	300만 명 (2015년)	1인당 GDP	4,195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민주공화제	통화단위	Tugrik (투그릭)
대외정책	친서방 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1,970 (2015년 평균)

-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,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는 중국,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음.
- 1921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, 1924년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 1당 체제 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음. 1992년 구소련 붕괴 이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.
-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구리(5,500만 톤, 세계 2위), 형석(1,400만 톤, 세계 3위), 인(24억 톤, 세계 3위), 석탄(1,750억 톤, 세계 4위), 텅스텐(7만 톤, 세계 5위), 우라늄(6만 톤, 세계 14위) 등의 광물 자원이 풍부함.
-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,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, 최근 일본, 인도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경제성장률	12.3	11.6	7.8	3.5	3.6
소비자물가상승률	14.2	11.2	10.7	7.1	6.8
재정수지 / GDP	-9.1	-8.9	-10.9	-9.7	-8.0

자료: IMF, EIU

□ 석탄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로 경제성장세 둔화

- 2013년까지 광업 부문의 급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10%대를 상회 하였음. 그러나 2014년 이후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석탄 수출 감소 등으로 크게 둔화됨.
- 2015년 경제성장률은 리오 틴토사*(Rio Tinto)와 몽골 정부 간 오유톨고이** 광산 세금·구축비용 갈등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급감으로 3.5%를 기록하였고, 2016년에도 전년 수준인 3.6%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.
 - * 철광석 생산량 기준 세계 2위인 호주의 다국적 광산개발업체
 - ** 몽골의 최대 광산(구리 3,700만톤, 금 1,300톤, 은 7,601톤 매장)으로 수출의 20~30%를 차지

□ 유가 하락, 금리 인상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 하락

- 투그릭화 절하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12년 물가상승률은 14.2%를 기록하였으나, 그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음.
- 저유가 기조 지속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, 중앙은행의 두 차례 금리 인상* 등으로 2015년 물가상승률은 7.1%을 기록하였고, 2016년에는 6.8%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 - * 기준금리 추이 : 10.5%('13.7월) → 11.5%('14.7월) → 13.0%('15.1월)

□ 재정적자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투자 증가로 만성적 적자 상태 지속

- 경기 진작을 위한 공공 인프라 투자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최근 4년간 10%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함.
- 다만,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 노력으로 2015년 소폭 하락한 9.7%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8.0%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임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광업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원자재가격 변동에 취약

- 광업이 GDP의 20%, 총 수출의 90%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광물가격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.
- 특히 총 수출의 4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 가격의 하락*은 경제 성장을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, 향후 세계경기 침체 지속 시 몽골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.

* 구리가격(톤당): 10,000달러('10년) → 7,554달러('11년) → 7,870달러('12년)
→ 7,375달러(13년) → 6,445달러('14년) → 4,702달러('15년)

□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

- 중국은 몽골의 전체 수출액 중 95%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석탄 수출 시장, 소비재 공급국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.
- 아울러, 제2위 교역국인 러시아는 2015년 기준 총수입의 27.2%, 전체 원유 수입액의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- 풍부한 광물자원에 기반한 투자, 수출 증대 가능성
 -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구리(세계 2위), 인(세계 3위), 석탄(세계 4위) 텅스텐(세계 5위) 등 광물자원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음.
 - 2015년 4월 정부와 투자자간 갈등으로 2년간 중단된 오유틀고이 광산 2단계 프로젝트가 재개되고, 향후 원자재 가격 회복 시 투자 및 수출 활성화가 기대됨.

-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 개발 의지로 대규모 인프라 수요 잠재
 - 몽골은 풍부한 광물자원에 비해 전력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나, '몽골 국가 개발전략 2007~21*'을 수립하는 등 자원개발과 연계한 정부의 투자유치 의지가 높아 향후 대규모 인프라수요가 예상됨.
 - * 2021년까지 2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여 도로·교통·에너지 등의 주요 인프라 확충을 목표

다. 정책성과

- 자원 관련 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
 - 2014년 5월 노로빈 알탕후야그 총리가 외국인직접투자 감소(2013년 기준 52%)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회생 100일 계획*을 발표함.
 - * 광물 생산 증가, 외국인 투자 유치, 인프라 개발 등의 조치를 통해 몽골 경제 회복을 목표
 - 동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 중 개발 가능한 광산 비중을 8%에서 20%로 확대하고 개발 기간을 9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였음.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10억 달러의 신규 투자 유치에 성공함.

□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

- 2015년 7월 제2차 중국-러시아-몽골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‘실크로드 경제벨트’, 러시아의 ‘유라시아 대통로’, 몽골의 ‘초원의 길’ 이니셔티브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기로 합의함.
- * 중국 국경에서 러시아 간 1,100km 길이의 철도를 운영 중이며, 양국 간 철도망 고속도로, 가스·오일 파이프라인, 전기선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
- 이를 통해 인프라 수요가 창출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됨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경 상 수 지	-3,362	-3,156	-982	-1,040	-2,531
경상수지/GDP	-27.4	-25.4	-11.7	-9.5	-16.8
상 품 수 지	-1,552	-1,257	1,028	1,180	584
수 출	4,381	4,267	5,773	5,109	5,523
수 입	5,933	5,574	4,745	3,929	4,939
외 환 보 유 액	3,930	2,096	1,540	1,289	-
총 외 채 잔 액	15,385	18,921	22,823	23,241	24,827
총외채잔액/GDP	125.3	150.0	189.4	187.1	189.3
D. S. R.	21.2	26.6	64.6	57.9	44.1

자료: IMF, OECD, EIU

□ 광물 생산 및 수출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하락 추세

- 오유틀고이 광산 1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광물 수출 증가로 2014년 상품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으나,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으로 경상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를 유지함.
- 장비 수입 감소에 따라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9.5%를 기록하였음. 그러나 오유틀고이 2단계 프로젝트 협상 타결로 자본재 수입 확대가 예상되어 2016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.

□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와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액 감소세 지속

- 외국인직접투자 감소, 경상수지 적자 누적 등에 따라 최근 4년간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였으며, 2015년 말 외환보유액은 2012년 말 대비 3배 이상 감소한 13억 달러로 추정됨.

□ GDP 대비 외채 비중 상승세 지속 및 D.S.R 적신호

- GDP 대비 외채 비중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출 확대 및 광산 개발에 따른 차입 증가로 최근 3년간 150%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.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189.3%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
-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ebt Service Ratio: D.S.R.) 역시 2014년에 크게 증가하였고, 2016년에는 광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40%대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동향

□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재선으로 안정적 정치기반 유지

- 2013년 재선에 성공한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인민당과의 연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유지하고 있음.
- 한편, 2016년 6월에 예정된 총선에 대비해 집권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인민당 간에 표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.
- 인민당의 내부 분열 등에 따른 국민들의 반감으로 민주당의 근소한 승리가 예상되며, 이에 따라 민주당의 집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부정부패 만연으로 정치인, 공무원에 대한 신뢰 저하

- 몽골은 정치인,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, 비리 등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하고, 이에 따른 법적 통제장치가 미약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음.
- 2012년 앵흐바야르 전 대통령이 국가부동산의 개인취득 비리 혐의로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함.
- ※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(TI)의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따르면 몽골은 170개국 중 80위로 정치인,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.

2. 사회동향

□ 극심한 빈부격차 지속으로 빈곤문제 가중

- 경제성장의 과실이 도시 및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도·농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. 또한, 인구의 1/3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집계되는 등 빈곤문제가 심각함.
- 특히, 도시 외곽 지역은 사회 인프라가 미흡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제한됨.

□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실업률 확대

-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몽골의 실업률은 최근 4년간 약 8%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.
- 전문 인력의 공급은 부족한 반면, 비숙련 노동자가 초과 공급 상태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.

3. 국제관계

□ 중국, 러시아와의 정치적 균형 유지 및 외교 다변화 추진

- 대몽골 영향력 행사를 두고 중국-러시아간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나, 몽골은 중립노선을 통해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.
- 한편, 제3의 이웃 정책* 하에 일본, 인도, 미국 등과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대를 강화함. 이를 통해 중국, 러시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자 함.
- * 중국,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몽골의 대외 정책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ECA 앞 연체금액이 증가하였으며, 외채상환능력은 취약한 상태

-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 잔액이 2015년 3월 말 710만 달러에서 2015년 9월 말 77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, 외채상환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.

※ 2015년 3월 말 기준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

-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2015년 9월 기준 단기 0.4억 달러, 중장기 7.8억 달러 총 8.2억 달러임. 또한 미국(430백만 달러), 독일(114백만 달러), 덴마크(81백만 달러) 순으로 큼.

2. 국제시장 평가

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D2 (2016. 1.)	D2 (2014. 3.)
OECD	6등급 (2015. 10.)	6등급 (2015. 7.)
Moody's	B2 (2016. 1.)	B2 (2014. 7.)
Fitch	B (2015. 11.)	B+ (2014. 12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국교수립: 1990년 3월 26일(북한과는 1948년 10월 14일)

주요협정: 무역협정(1991년),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(1991년), 문화협력협정(1991년), 투자보장협정(1991년), 이중과세방지협약(1993년) 세관분야협력협정(1993년), 에너지·광물자원협력협정(1999년) 사회보장협정(2006년), 사증발급간소화협정(2012년)

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5년 12월말 기준 545건 429백만 달러(누계기준)

교역규모

<표 4> 한·몽골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주요품목
수 출	399,472	346,808	245,674	자동차, 건설 및 광산기계, 기호식품
수 입	26,958	23,585	46,187	금속, 비금속광물, 석탄
교역규모	426,430	370,393	291,861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 의견

- 외국인직접투자의 급격한 감소와 석탄 수출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임. 이에 따라 2015년 3.5%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- 공공 인프라 투자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0% 내외를 기록하였으나, 정부의 수지관리 노력으로 2016년에는 8.0%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- 2016년 오유틀고이 광산 2단계 프로젝트 재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16.8%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.
- 몽골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.S.R.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환율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도 민감하여 외채상환능력은 취약한 상태임.

조사역 조재동 (☎02-6255-5727)

E-mail: jjd8948@koreaexim.go.kr